

# 국감, 세종시·4대강 등 핫 이슈 대충돌

### 오늘부터 20일간...여야 주요 쟁점 놓고 '창과 방패' 정면대결 예고

### 與 '정책국감'으로 철벽 방어...野 '제2 청문 국감'으로 MB정권 심판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江) 살리기 사업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면 대결이 예고됐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4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가깝게는 10월 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및 정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멀게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 집권 2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살리는 '서민과 민생 국감', 정부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정책 국감'은 물론 정책의 오류나 부족한 면을 채우는 '대안 국감'을 '3대 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소속 의원들이 파악한 민심을 다각도로 분석, 당 정책위에서 정책화를 피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폭로전이나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신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의 경우 선부론 대응을 할 경우 야당의

전략에 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야당과 여론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국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 예산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불꽃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9·3 개각'으로 새로 구성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9부 2차 2청 이전'이란 세종시 원안 유지를 매개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간접자본(SOC) 감소 등을 내세워 정부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참사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간 치열한 공수대결 속에 검증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용산사과 관련자를 대거 불러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 공세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증인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

## 쓰나미·지진·살인태풍...지구촌 자연재해 몰살

印尼-리히터 규모 7.6 강진 덮쳐 수천명 매몰  
 比·베트남- '살인태풍' 켈사나에 수백명 사망  
 인도-수십년만에 대폭우...이재민 300여만명



필리핀 마닐라 동부 마리카나에서 4일 한 남성이 태풍 켈사나가 가져다 놓은 잔해 속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고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사모아 제도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 수백 명이 숨졌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태풍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 말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리히터 규모 7.0~8.0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 수천 명이 숨지고 건물과 교량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인도네시아 파당시에서는 지난 달 30일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 4일 현재까지 총 777명이 사망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도 2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당국은 파당시와 다른 6개 지역에 아직 3천~4천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사망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에서도 지난 달 29일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해 이어 지난 2일엔 또다시 진도 6.3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4일 현재까지 180명이 숨졌다.

필리핀에선 1주일 전 태풍 켈사나가 강타하면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 3일엔 초대형 태풍 파르마가 북동부 지역에 상륙, 4일 오전(한국시간)까지 최소한 주민 1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베트남에서도 태풍 켈사나의 여파로 모두 9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6천376개의 가옥이 완전히 무너지고 17만2천672채가 반파됐으며, 17만3천611채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 남부에서는 수십 년 만에 대폭우가 내리면서 사망자 수만 200여 명에 이르며, 이재민도 300여 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대화나 교착이나' 북핵 중대 갈림길

### 中 원자바오 방북...북 '중대발표' 나오나 관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4일 방북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평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원 총리가 북한의 노동당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비행장에서 원 총리를 '따뜻이' 영접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북핵 사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중국이 '최고위급' 중재 움직임에 북한이 어떤 답을 주느냐에 따라 대화 국면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교착국

면이나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는 특히 단순히 물리적인 회담복귀의 차원을 넘어 미국이 대북제재의 철폐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화 속내도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외교가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원 총리의 방북은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미대화의 시기와 성격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원 총리는 빠르면 5일중 김정일 위원장과 회동하고 이후 공동발표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어

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놓고는 외교가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베이징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중대발표설'에 근거해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가역적 비핵화 내지 핵폐기 의지를 표명하고 6자회담에 공식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파격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내놓을 답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구체화된 약속을 피한 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루뭉술한 의지표명과 함께 '다자회담'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원 총리의 방북에 뒤이은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북·미대화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日 나카가와 前 재무상 자택서 돌연 숨진채 발견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56) 전 재무·금융상이 자택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 도쿄 경시청은 4일 오전 나카가와 전 재무상이 도쿄의 세타가야구에 있는 자택 2층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시청은 이날 아침 나카가와 전 재무상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침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급대가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주목할만한 의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자민당 정권에서 농수산상, 경제산업상, 자민당 정책회장 등을 역임한 8선의 자민당 실력자였으나 지난 8·30 총선에서 낙선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아소 다로 자민당 정권에서 재무상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 로마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때 만취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퇴했다. /연합뉴스

## "명단삭제 10명, 하토야마에 현금"

도쿄지검, 정치현금 수사 착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우에정경간화회가 정치자금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명단에서 삭제한 인물 가운데 10명은 실제 현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취재를 통해 우에정경간화회가 정치현금 기부가 허위기재됐다며 명단에서 삭제한 90여명 가운데 10명은 실제로 현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했다고 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일부터

우에정경간화회의 정치현금 허위기재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우에정경간화회의 정치현금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5만여 명의 개인기부자는 114명, 262건이며 액수는 9천952만6천엔이다.

우에정경간화회는 이 가운데 94명 193건, 2천177만8천엔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거나 가공의 인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이들의 명단을 기부자 명단에서 모두 삭제했다. /연합뉴스

The Great Tradition - KOS

퍼거태 푸른빛 물결!

KOS 주식회사 한때